

술의 향연과 우수

-술의 문학적 상상력-

1. '즐거운 지옥'의 황홀경



우 찬 제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

술을 바커스의 선물로 여기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첫 잔은 갈증을 면하기 위하여, 둘째 잔은 영양을 위하여, 셋째 잔은 유쾌하기 위하여, 넷째 잔은 발광하기 위하여 마신다.”고 말이다. 딱 그럴 듯하게 들린다. 하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일찍 바커스 즉 디오니소스가 전해준 포도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연극 카니발을 열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아예 “술이 없는 곳에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또 보들레르는 “노동은 나날을 풍요롭게 하고, 술은 일요일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했고, “그 술의 힘, 그 술의 달콤함, 그 술의 좋은 것, 그것은 너의 핏속에 불사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술을 예찬한 이는 보들레르, 말라르메와 더불어 프랑스 상징주의의 거장으로 꼽히는 폴 베를렌이었다. 물론 “네게 만일 적당한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너를 악마라 부를 것”이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표현처럼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술처럼 호, 불호가 뚜렷하게 갈라지는 경우도 딱 드물 것이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존재가 바로 술이다. 작가 홍성원은 '즐거운 지옥'이란 일종의 모순어법으로 술의 황홀경을 이야기한다. 그가 펼치는 술판을 우선 기웃거리 보기로 한다.

■ 目 次 ■

1. '즐거운 지옥'의 황홀경
2. 술의 낭만과 취흥의 미학
3. '술권하는 사회'의 우수
4. 디오니소스 축제와 술의 향연
5. 압구정동 카페에서 IMF포장
마차까지

소주가 왔다. 이 홉들이 두 병이었다. H는 즐거웠다. 그는 술을 사랑했다. 아니 술 자체보다도 술에 취한 자신을 더 사랑했다. 그는 술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문득 서늘한 냉기가 전해왔다. 소주만이 낼 수 있는 소주 특유의 체온이다. 그것은 늦가을의 서리처럼 싸늘한 체온이었다. 그는 소주의 첫 잔을 좋아했다. 소주의 첫 잔은 입에서는 달고 목구멍에서는 차고 뱃속에서는 뜨거웠다. 그는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뱃속에 들어가, 잠자는 위를 흔들어 깨우고 점액질의 위벽을 술술 어루만지며, 처음에는 느리게 나중에는 빠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불씨들이 되어 두꺼운 위벽을 뚫고 활기에 차서 와 합성을 지르며 거미줄 같은 모세혈관으로 고무줄 같은 질긴 동맥으로, 투구를 쓰고 작은 창을 쥔 장난기 많은 꼬마 병정들이 되어, 영차영차 합창을 하며 여기도 집적 저기도 집적 기관차처럼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은 건지 술이 사람을 먹은 건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 활기와 혼미와 G 마이너스 현상이 좋았다. 그것은 기본 좋은 지옥이었다.

“자, 잔 받아라.”

C가 H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H는 술잔을 받았다. 그는 문득 소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영어로는 화이트 리커, 백주(白酒)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주가 흰까? 소주는 화이트일까? 아니다, 그것은 소주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 소주는 희지 않고 맑은 것이다.

“야, 너 뭐하니?”

K가 H에게 재촉했다.

“기도한다.”

“빨리 돌려.”

H는 잔을 돌렸다.

“근사한데?”

C가 말했다.

“뭐가?”

“소주 말이야.”

그렇다. 소주는 근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모여 앉아 가끔 근사할 필요가 있었다.(홍성원, 「즐거운 지옥」).

60년대말, 7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술자리 풍경이다. 무엇보다도 술에 대한 섬세한 반응의 정도가 어지간하다. 술에 대한 웬만한 애정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묘사로 보인다. 사실 이 밖에도 문학에서 술에 관한 표현이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다. 그중 대표적인 몇몇 술자리 풍경을 간략히 스케치해 보기로 한다.

2 술의 낭만과 취흥의 미학

예로부터 음주가무는 인간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런 까닭에 동서양을 막라하고 취흥의 노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고려가요나 시조의 전통에 흐르는 술과 취흥의 정취는 확실히 우수종이다. 가령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달 밝으면 술 생각하고 / 꽃 피자 달 밝자 술 있으면 벗 생각나네 / 언제나 꽃앞에 벗 다리고 완월장취(翫月長醉)하리오.” 같은 시조에서 보듯이 꽃과 달과 술과 벗은 늘 함께 어우러지는 취흥의 구체적 요소였던 것이다. 이런 취흥의 미학은 이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진다.

김동명은 「술노래」에서 술 취해 “무적함대(無敵艦隊)의 사령관인 양 자못 호기”를 부리는 장면을 묘사한다. 취흥은 “저 놀랍고도 새로운 천문학적 ‘진실’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여보게, 나는 이제 / 이 호박(琥珀)빛 액체가 주는 마술을 빌어 / 나의 새끼 손톱으로 / 요놈의 지구덩이를 튕겨 버리려네.”라고 노래할 정도다. 술 취한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호기의 현상을 그린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호기나 취흥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취하기 이전의 현실 상황에 대한 반명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강고한 현실원

칙에 의해 인간이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다른 쾌락원리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 한 방편이 술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취흥의 미학이나 술의 낭만은 사실 중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청록파 시인으로 알려진 조지훈이나 박목월의 술에 관한 시편들도 그렇다. 발표는 해방 후에 되었지만 일제 말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조지훈의 「완화삼(玩花衫)」이라는 시가 있다. '목월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시에서 지훈은 이렇게 노래했다. "차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 구름 흘러가는 / 물길은 七百里 //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 술익은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 꽃은 지리라. // 다정하고 한 많음도 병인 양하여 /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일제 말의 암울했던 상황과 민족의 한을 나그네의 심상으로 그린 이 시에서 '술익은 강마을'은 낭만적 동경의 대상에 다름아니다. 지금 나그네는 술익은 강마을에서 마음 편히 저녁 노을을 완상할 처지가 못된다. 현실적인 결여가 낭만적 동경을 낳는 셈이다. 이런 낭만적인 어조에 박목월이 화답한 결과가 바로 저 유명한 「나그네」라는 시다.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 南道 三百里 //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 놀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김중길의 한국 낭만시의 정상에 이른 시라고 평가한 바 있는 이 시에서 문체되는 대목은 지훈의 시에도 들어 있던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이다. 이를 놓고 현실주의자들은 식민지 말기 상황에서 하루 세끼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판에 무슨 수로 술을 빚었겠느냐며 전혀 현실감이 없는 시라고 가치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

면 마을마다 술익는 냄새가 퍼져나가는 상황은 썩 괜찮은 상황이다. 바로 그같은 이상적 현실을 목월이 낭만적으로 동경하고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 즉 일상적 진실이 아닌 이상적 진실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지나치게 현실 원칙을 앞세우면 대체로 취흥의 미학은 깨지게 마련이다. 술은 대개 낭만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천상의 술의 시인 천상병의 경우 취흥은 장엄의 미학으로까지 올라간다.

골목에서 골목으로

거기 조그만 주막집.

할머니 한 잔 더 주세요.

저녁 어스름은 가난한 시인의 보람인 것을……

호리명탕한 눈에 이 세상은 다만

순하다 순하기 마련인가.

할머니 한 잔 더 주세요.

몽롱하다는 것은 장엄하다.

골목 어귀에 서툰 걸음인 양

밤은 깊어 가는데.

할머니 등 뒤에

고향의 뒷산이 솟고

그 산에는 철도 아닌 한 겨울의 눈이

핑핑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천상병, 「주막에서」 전문

골목길 작은 주막에서 가난한 시인은 한 잔 술에 몽롱하게 취해 장엄을 체험하게 된다. 그 몽롱한 장엄은 철도 아닌데 한 겨울의 눈까지 핑핑 쏟아지게 하는 것이다. 술 기운이 지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신비체험인 셈이다. 한편 1950년대의 덴디요 모더니스트였던 박인환의 경우는 어떤가. 십대 후반 혹은 이십대 초반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읊조려보았을 시 「목마와 숙녀」가 있다.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生涯와
 木馬를 타고 떠난 淑女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木馬는 主人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傷心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숴진다
 …(중략)…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女流作家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燈臺……(중략)…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는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人生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雜誌의 表紙처럼 通俗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木馬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컷전에 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박인환, 「木馬와 淑女」

그 자신이 풍류와 흥취의 면에서 남에게 뒤지길 한사코 싫어하는 시인 정현종도 술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 술을 “물로 되어 있는 바다 / 물로 되어 있는 구름 / 물로 되어 있는 사랑”(「술노래」)으로 비유하는 그는, 이백(李白)의 [終南山을 내려오다가 解斯山人 집에 자면서 술을 마시다]에서 “나는 취하고 자네 또한 즐겁거니 / 陶然히 둘이 함께 세속 생각 잊었다”는 구절과 오마르 카이얌의 「루바이아트」에서 “술이여 그대는 최고의 연금술사 / 납덩이 인생을 황금으로 바꾸누나”는 부분을 따와서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시 「황금 醉氣 1 - 김현과 어울린 술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그 수줍은 肉德과 酒德은 대충
 和唱하는 것이었지만,
 마시면 그저 좋을 뿐이니
 좋은 일을 어찌 마다했으랴.
 인생살이 안팎이 실은
 단근질이니
 불에는 불로! 라는 듯
 물불 타올랐거니---

맥주 거품은 늘 왕관모양!
 구름모양! 부풀어올랐고
 그야 우리는 왕관부터 구름부터 마셨으며
 취기는 거기 달린 장식
 구슬 영락처럼 찰랑됐다.

사람 사귀기 문학 얘기 그리하여
 편하고 훈훈하게 피어오르고
 그 술 연금술 또 말과 사람을 황금으로 만들어
 우리는 바야흐로 금에 홀린 黃金狂,
 가끔은 서로 황금 불알도 만졌느니.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
 술이 우리를 이기고
 작부가 우리를 이기며
 시간이 우리를 이기는 동안
 우리는 실로 내장을 다시 웃었느니,
 집도 절도 없는 그 웃음들은
 이제 무슨 집 무슨 절로 서 있는지--
 --정현종, 「황금 醉氣 1 - 김현과 어울린
 술자리」 전문

술과 더불어 문학에 취했던 비평가 김현을 추모한 이 시에서 술은 일종의 연금술사가 된다. 김현도 그랬고, 이점에서 시인 정현종 역시 연금술사다. 취흥의 연금술사라는 점에서

교감할 수 있었기에 김현에 대한 이런 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김현을 추모하는 다른 시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情夫 情婦로 놀아났지 // 시인 소설가 / 동료 후배들 / 해해 낙낙 해낙낙하게는 / 이 술집 저 술집 유정 삼만리 // 사람 욕심 술 욕심 / 글 욕심 합해서 / 花柳는 不知足이라”(「정이 많아서 - 정부 김현」)는 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김현에게 있어서나 정현종에게 있어서 술의 취흥과 문학의 쾌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술의 취흥으로 문학을 빚고 문학의 쾌락으로 술자리의 취흥을 한층 북돋운다. 그럴 때 술의 향연은 생산적인 에너지로 넘쳐난다. 아울러 황홀경의 절정으로 치달는다.

3. ‘술 권하는 사회’의 우수

그같은 황홀경 속에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인생사란 게 어찌 그런가. 황홀경의 저편에 온갖 고통과 우수로 얼룩진 현실의 자리가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것을 함부로 외면할 수 있겠는가.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또 술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종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화두가 생성된다.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는 1920년대 초반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의 절망과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전경화되는 것은 지식인 남편의 술 마시는 행위와 그 이유이다.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이렇다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술만 마셔야 하는 안타까움이 중점적으로 묘사된다.

아내는 지식인 남편에게 기대가 컸었다. 동경으로 유학간 남편이 명예와 돈을 한 몸에 지닐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터였다. 그러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영 판판이었다. 돈도 벌지 않고 명예도 없으며 날로 술주정꾼으로 변모된다.

홀로 살림을 감당하는 자신을 무식하다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다. 게다가 남편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며 닦아기도 한다. 적잖이 실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날도 그랬다. 남편은 새로 두 시가 훨씬 지난 후에야 잔뜩 술취한 채로 돌아온다. 남편은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쓰러진다. 남편의 옷을 벗기려다가 둘 사이에 왜 술을 마시는가, 무엇이 술을 마시게 하는가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아내는 “첫째는 핫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라고 말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생긴 핫증과 술집 신여성의 유혹이 어우러져 술을 마셨을 것이라는 아내의 추정이다. 아내의 이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친다. 무엇을 할 수 있고 가망도 있는 자신이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선 사회의 분위기가 자신을 술 마시게 한다고 남편은 말한다. 아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같이 보이자 남편은 거듭 말한다.

“흥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핫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고요.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고요. 알았소?”

술 마시고 싶어 마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 사회가 자신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되게 한다는 것이다. 즉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과 분위기에서 찾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연하게도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고”라는 남편의 말은 부연 설명될 필요가 있다.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會)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적이 정신이 바루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보았어. 그것이 모다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중략)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군 노릇밖에 없어……”

남편을 술 마시게 하는, 다시 말해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 조선 사회의 분위기란 어떠한가. 남편이 보기에 진정 민족과 사회를 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다가,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든 지리멸렬하게 분열된 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현 조선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니 술을 마시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내는 이런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내는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잘 되어야 할 터인데 술주정꾼이 되는 것이 못마땅할 따름이다. 남편은 다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아내에게 짜증을 낸다. 아내 역시 “술 아니 먹는다고 흥장이 막혀요?” 하며 울부짖는다. 이에 남편은 “너 같은 숙맥더러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르지”라며 “아아 답답해!” 라고 부르짖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아내는 자기가 잘못 했다고 남편을 붙잡지만 남편은 이내 나가버린다. 그러자 아내는 매우 절망적인 어조로 “그 몸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라고 탄식하면서 소설은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 잃은 망국 상태에서 지식인이 실천적 지표를 상실한 채 부정적인 폐단 속에서 흔들리는 그래서 술주정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당대 지식인의 우수와 절

망의 모습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확실히 당대는 술 권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김동리의 「황토기」에서 보이는 두 장사의 야수적인 힘겨루기 이야기에서도 이런 맥락을 읽어낼 수 있다. 그들은 종종 육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힘겨루기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데, 그 쾌감은 싸움 후의 술마시기로 절정을 이룬다.

역쇠의 목과 입과 코에서도 다시 피가 쏟아졌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 손으로 아래턱을 받쳐 피를 받으며 우두커니 앉아 있다 말고 돌연히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는 길로 또 한 번 와락 득보에게로 달려들어 쓰러져 있는 그의 바른편 어깨를 물어 떼었다. 어깨의 살이 떨어지며 시뻘건 피가 팔꿈치까지 주르르 흘러내리자 득보는 몸을 꿈적했으나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이었다. 역쇠의 입에 문 득보의 어깨살을 질질질겅쩍다 별건 핏덩어리를 입에서 뱉어내고, 그러고는 술 항아리를 기울여 술을 몇 사발 마시고는 쓰러져 버렸다.

여의주를 잃은 용과도 같은 두 장사의 무모한 힘겨루기는 절대적 운명을 비껴가기 어려운 상황의 비극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역쇠나 득보는 비범한 힘을 지녔으며, 그 힘을 현실에서 제대로 쓸 수 없었다. 현실 공간에서 그들의 넘치는 힘은 소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 장사는 그들의 힘을 엉뚱하게 낭비하고 탕진하고 만다. 그 비범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현실의 논리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까닭이다. 신분적 질곡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의해 많은 보통 사람들은 제 뜻과 힘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좌절과 곡절을 겪게 된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쳐져 있기에 차라리 초역사적인 보편성을 갖는다. 「황토기」의 여의주를 잃은 용의 이야기, 역쇠와 득보라는 두 장

사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차적으로는 식민지 시대라는 특정 역사적 시기의 민족적 비운을 나타내면서, 더 나아가서는, 또는 심층적으로는 그 역사적 시간을 넘어 차라리 신화적 시간에 걸쳐진 비극적 운명의 아이러니를 자아내는 것이다.

최인호 「술꾼」에서 어린 술꾼을 비롯한 일련의 술꾼들 역시 생활과 자신에 대한 저주의 한 형식으로 술 마시기를 택한 인물들로서, 술 권하는 사회의 또다른 단면을 보여준다. 신경림의 시 「농무(農舞)」에서도 고달픈 농촌 현실에 대한 대응의 기제로서 술이 문제되고 있다. 징이 울리고 가설 무대가 열렸지만 농민들은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막이 내리기 무섭게 “분이 얼룩진 얼굴로 /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기 때문이다. “비료 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술이나 마시고 농무나 추며 놀자는 역설적인 푸념에서 우리는 1970년대 농촌 현실의 구체적 실상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4. 디오니소스 축제와 술의 향연

술 하면 우리는 흔히 디오니소스 Dionysos(로마에서는 바커스)를 떠올린다. 술과 도취, 해방의 신 디오니소스 말이다. 아테네 2대 연극제(희극을 주로 하는 레나니아 축제와 비극을 주로 하는 디오니시아 축제)의 수호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는 확실히 노동보다는 놀이 내지 축제적 향연의 주재자다.

이청준의 「호르지 않는 강」을 보면 그같은 카니발의 주재자를 연상케 하는 야수성의 사내가 나온다.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주로 하며 두목이라 불리는 그 사내는 서울 손님들이 찾아와 주막의 색시들과 더불어 술자리를 만들

면 이내 찾아가 합석하여 술시합을 벌이고 색시를 차지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인물이다. 술과 물의 신으로서의 이미지와 에로스의 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그 사내의 리비도는 실로 엄청날 정도다. 그 어떤 서울 손님도 그의 리비도나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서울 손님들이 나타나면 그는 이런저런 구실로 끼어들려 한다. 그들은 속내와는 달리 이 사내를 끼워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하…… 한국 사람 인심 가운데선 그래도 술 인심하고 담배 인심이 제일이라던데, 술자리 벌이고 앉은 술꾼들이 어찌 술꾼을 그냥 지나가랴 할 수 있겠소. 하하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두목의 합석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합석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목의 원시적 야수성이 춤추는 그런 술의 카니발이 연출된다.

“자, 여기 술잔 받으시우.”

“허허, 이러다간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 그대로구려. 숨이나 뎀 돌립시다, 원.”

“아따, 이 맹물 같은 소주 한 양재기 가지고 별 그렇게 엄살이시우, 엄살은.”

술컵 대신 아예 물 양재기였다 두 홉들이 소주병을 절반만큼씩 털어 부은 술잔이 두목과 서울 손님들 사이를 설새없이 오가고 있었다. 서울 손님들 한 잔에 자기도 한 잔씩, 그런 식으로 두목은 거기 있는 것이 모두 자기 술이나 되는 것처럼 매번 빈 양재기를 새로 채워 차례차례 서울 손님들에게 앵겼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대방더러 잔을 빨리 비워 내지 않는다 성화를 대고 있었다.

이런 술의 향연을 주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내의 에너지와 리비도에서 연유한다. 술에 관해서라면 그는 그야말로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묘사된다. “뉘니뉘니

해도 술이라면 역시 두목이었다. 두목은 아까 점심때도 벌써 두 병 가까이나 소주병을 비워 냈고, 이번에 다시 술자리에 끼여든 다음에도 그 사이 열 번은 넘어 양재기를 비워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슨 술도깨비라도 따로 뺏속에 들어앉아 그 술을 대신 삭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씨나 거동이 멀쩡했다. 그렇게 술잔을 비워내고 말대꾸를 주고받으면서도 두목은 또 끊임없이 서울 손님들의 술기와 기분 돌아가는 낌새를 유념해보고 있을 터였다.” 같은 부분에서 명료하듯, 그의 육체적 에너지와 그에 따르는 주량은 범인의 그것과는 비교할 게 못된다. 작가 이청준은 때때 이같은 원시적인 열정과 야수적인 생명력으로 운명과 한을 넘어서려는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그런 과정에서 술은 일종의 통과제의의 기제처럼 끼어 든다.

잘 알려진 [서편제] 연작에서도 그렇다. 이 연작의 후반부로 가면 오라비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눈먼 소리꾼 누이를 남도의 한 주막에서 만나게 된다. 오누이 신분 확인을 뒤로 미룬 채 들은 술과 소리의 향연을 펼친다. 손님처럼 오라비가 소리를 요청하자 누이는 맞받아 북장단을 오라비에게 청하고, 이에 향연은 밤새도록 펼쳐진다. 이 술과 소리의 향연을 통해 여인은 세삼 한을 초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여인의 소리는 남성적 우조와 여성적 계면조, 도저한 기백과 한스러운 귀기, 가파른 절벽과 유장한 강물, 폭풍의 한밤과 꽃별판의 한나절 등의 대립쌍들을 넘나들며 우주적으로 확장된다. 그것은 가히 우주적 진실에 입각한 삶의 전체적 인식을 함축하는 것이다. 현실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현실을 넘어가는 핏절한 소리의 형상이다. 삶의 모든 것이 거기서 설명 가능하다. 그러기에 이 소리의 향연과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차별 없이 공존하며 서로 스며들어 신명과 생명을 새롭게 지피

고 꽃피운다.

여인의 소리가 이리함으로, 그녀는 소리를 통해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던 선학의 비상을 스스로도 보고 남에게도 보게 한다. 소리의 우주적 교감이며, 우주적 작용을 황홀한 환각처럼 발견하는 대목이다.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한데 사내는 그 여자의 오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 속에서 자신도 문득 그것을 본 것이다. 사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내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온 옛날의 비상학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의 소리가 길게 이어져 나갈수록 선학동은 다시 옛날의 포구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학이 그곳을 끊임없이 노닐기 시작했다.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포구에 물이 들면 마을 뒤의 관음봉이 한 마리의 학의 모습이 되어 날아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선학동이다. 그런데 마을 앞 포구에 제방이 생겨 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선학동에서는 더이상 비상학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환상 속에서만 신화처럼 그리던 관음봉의 비상학이었다. 그런데 이 신화가 소리와 더불어 재현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주막집 주인이 보게 된다. 따온 부분이 바로 그 모습이다. 선학동 마을의 공동체적 신화의 부활은 한 소리의 우주적 결실이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 깊어진 한의 소리가 자연과 교통하고 우주와 순환 운동하는 것이다. “비상학과 더불어 소리를 시작하면 선학이 소리를 불러낸 것인지 소리가 선학을 날게 한 것인지 분간을 짓기 어려운 지경”이 이청준이 꿈꾼 바 또다른 한 우주의 황홀경이다.

5. 압구정동 카페에서 IMF 포장 마차까지

1990년대의 소설에서도 예외 없이 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아니, 소비사회니 거품 경제니 하는 논의에서 시작해 IMF로 마감되는 이 연대의 소설에서는 성의 과소비와 더불어 술의 과소비 역시 문제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술의 상상력이나 재현 양상 또한 매우 다채롭다. 압구정동 카페에서의 술의 향연에서 IMF 시절 포장마차에서의 쓸쓸한 술마시기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순원은 소설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에서 우리를 압구정동의 카페로 안내한다. 바람부는 날이면 가야 한다고 시인 유하가 묘파했던 바로 그곳 말이다.

중계 말하면 이 땅 신흥 자본 상류층의 집단 대명사요 넘치는 상징이지만, 체면 가릴 것 없이 구분대로 부르면 이 땅 졸부들의 끝없는 욕망과 타락의 전시장. 아니 똥통같이 왜곡된 한국 자본주의가 미덕(?)처럼 내세우는 환락의 별칭적 대명사이다. ... (중략) ... 오, 이 땅 자본주의의 선택된 영광과도 같은 '지배적 욕망의 평등사회' 혹은 '평등적 욕망의 지배사회' (중략) ... 그 거리의 상징은 욕망 앞에 평등하고 타락 앞에 기회 균등하다.

이런 공간인 압구정동을 무대로 하여 소설 속의 인물들은 마지막 비상구조차 막혀버린 부패와 타락 속에서 술에 취하고 일대 활극을 벌인다. 부동산 투기꾼인 40대 '까만 가죽치마' 여인, 성도착증의 노파나 게이, 황음에 절여 있는 재벌 회사의 2세 남해성 부사장이나 양재동 빌라의 여대생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모조리 극단적으로 타락한 돈·성·술의 유희에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탕진시킬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해악만 끼치는,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자본주의의 끝간 데 모를

부패와 타락이 생산해 낸 쓰레기"들이다. 이런 인물들이 압구정동 거리를 가로지르며 거침없이 타락한 욕망을 불지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인물들의 의식과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의 문제의식 혹은 현실진단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다: i) 한국 자본주의는 전형적인 천민 자본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ii) 천민 자본주의 하에서 그 흐름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군상들 역시 기형적인 천민성에 사로잡혀 있긴 마차가지이다; iii) 천민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모순과 천민적 욕망 혹은 행태들이 결합되어 타락한 압구정동식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 현단계이다; iv) 그것은 매우 강고한 자체추동력을 가진 것으로서, 속도 또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동시킬 의미있는 대안을 찾기 힘들다; v)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출구라는 의미에서 '비상구는 없다'.

작가의 음울한 진단과 비관적 전망은 우리를 더욱 서늘하게 한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의 비관적 전망에 문학의 힘에 기초한 반항을 감행하고자 한다. 얼굴없는 테러리스트를 동원해 타락한 압구정동식 축제에서 흥청거리고 있는 인물들을 차레로 살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곧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된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경고를 의미하는 작가 의식의 소산이다. 나아가 전혀 잘못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중심 구조에 반항하여 그것을 해체하고, 정녕 있어야 할 의미있는 중심 구조를 지향하고자 하는 소설적 몸부림이다.

그러므로 이순원의 압구정동과 압구정동 카페의 술자리는 단순히 포스트모던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제재일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직접 대결하면서 문제의 증후를 명확히 하고자 제시된 비관적 공간인 것이다. 기실 그것은 전통적 도덕률 내지 프로테스탄티즘의 운

리와 결별한 채 소돔과 고모라로 방향을 잘못 든 타락한 후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요, 도전이기도 하다.

박상우의 평판작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90년대 초반의 분위기를 잘 포착한 일종의 카페 문학이다. 이 작가 특유의 낭만적 전략에 의해 무엇보다 허무혼의 아우라가 씩그렇듯하게 다가오는 이 작품의 의미망은 반대되는 두 가지 접근로가 포개어지는 순간 완성된다.

우리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결과보다도, 우리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가고 있다」는 과정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댄 때문이었다. …(중략)… 「흩어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흩어지고 있다」는 과정 때문에 수다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지금은 그런 허망한 연대의 벽두가 아닌가.

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셋이나 넷, 혹은 다섯이나 여섯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난 솔직히 말해 당신네들이 그 카페에서 매번 때를 지어 몰려와 떠들어대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혐오했었는지 몰라.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이 하나, 둘 제각각 알지 못할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공동선이 와해되고 개별적 이익 추구 경향에 따라 파편화되어가는 세태를 허무주의적 색조로 포착하는 렌즈가 하나 있는가 하면, 지난 연대의 집단적 광기와 공동선을 가장한 집단적 이성의 히스테리 증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시선이 그 나머지 하나다. 이 두 시선은 마지막에 “우리 중 하나가 탁자 밑으로 손을 뻗어 나머지 하나의 손을 필사적으로 거머쥐었다”는 결구에서 가까스로 포개진다.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현실에서 새롭게 개별 영혼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도모한 이

결구는 하나의 낭만적 조각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과 개인 양측 모두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허무를 풍기면서도 허무를 거두려 하는 90년대적 상상력의 고뇌를 담고 있다 하겠다.

구효서의 「자동차는 날지 못한다」에서도 친구들이 만나 술을 마시고 있다. 지하철 안의 잡지 광고에서 ‘우정’에 관한 광고 문구를 보고 우정을 확인하려고 만난 친구들이 휘황한 네온 사인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몇 가지 시사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과잉 생산과 강제 소비의 거대하고 완벽한 메커니즘에 잘 기능하도록” 인간들의 사고와 욕망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펍 우울하다. 아파트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또 인간들이 욕망하고 소비하는 그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마저 저당잡혀야만 하는 역설적이지만 절박한 상황을 작가는 문제삼고 있다. 풀어 말하자면 자동차나 아파트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이 자동차나 아파트를 위해 존재하는 이 전도되고 물화된 현실을 해부해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욕망이나 소비의 주체와 대상이 뒤바뀐 현실에서 주인공은 “매일매일 거대한 광고 박스에 처 넣어지는 눈과 귀만 달린 벌레라면 벌레” 같다고 느끼며, 그 광고의 충동질에 의해 욕망을 추동시켜 소비한 상품들 때문에 “시간과 의식과 꿈의 저장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타락되고 조작된 정보에 우리의 의식을 온전히 맡겨 버리고, 상품들에 의해 우리들의 꿈이 관리되도록 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것, 그래서 “메커니즘 링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작가는 핵심적인 주제문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막스 베버의 ‘철의 새장’에 대한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구효서의 주제는 새삼스러울 것은 없겠으나, 이제 우리가 일상

적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결코 단순한 술주정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IMF 상황에서의 포장마차 술자리가 있다. 이혜경의 「젓은 골짜기」라는 소설에서 가을 낙조같은 모습을 한 사내가 그 술자리를 주재한다. 그는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아버지다. 얼마 전 명예퇴직을 당한 후 실직의 서글픈 나날을 보내다가 지금은 미 8군에서 잡역부 자리를 겨우 얻어 보람 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사내다. 여러모로 인생의 늦가을 저녁 무렵을 맞이한 사람이다. 낙조의 참주제를 응시할 줄 아는 서늘하면서도 축축한 가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고령의 가야산 자락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에 가기 위해, 밤 기차를 타고 새벽 시간에 내린 참이었다. 어디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도, 그렇다고 곧바로 길길을 청하기도 애매한 시간이어서, 그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게 된다. 이 포장마차와 미명의 새벽길을 거닐며 그는 어떤 낮은 여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젓은 목소리로 펼친다. 명예퇴한 자기 처지 이야기부터 아내, 아버지 이야기, 교통사고로 죽은 '꿈깨'라는 별명을 듣던 친구 이야기, 따위들을 이려구려 늘어놓는다. 이런 이야기 다발들의 밑바닥에서 듣는 이들은 삶의 낙조와 관련된 메타포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 막막함이랄까 쓸쓸함이랄까 혹은 누추함이랄까, 하여간 삶의 아득한 골짜기에 파묻혀 보았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감의 쓸쓸한 덩어리들을 거기서 느낀다. 가령 그가 “장터에 나가면 늘 있던” “미친 사람들”처럼, “보통이 하나뿐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노출된 삶. 지붕도 담도 없이 몸에 걸친 옷만으로 한기를 감당하는 삶……” 같다고 읊조릴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감들 말이다.

이 소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안개’ 이미지다. 그것은 중의적이다. “안개가 빈틈없

이 둘러싼 골짜기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덮어버리고 시치미 떼는 안개요.”라고 말했을 때, 안개는 삶을 막막하게 사로잡는 무게 덩어리로 다가온다. 명퇴당한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안개 골짜기에서 해매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같은 무게의 안개 덩어리는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종종 절망의 벼랑으로 몰아붙인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박인환이 그랬듯이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하지만 작가는 아슬아슬한 절망의 벼랑에서 사람들을 건져낸다. 또다른 안개 이미지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 “안개 낀 산 풍경, 보셨나요? 능선이고 산비탈 발자락이고 다 뒤덮으며 다 쓸어내리는 안개요. 자주 내려오진 않지만 어쩌다 안개 낀 날 거기에 가면,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부분에서 안개는 존재자의 인식 지평을 깊게 해주는 쪽으로 기능한다. 이 안개는 소원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도 넓혀준다.

나아가 “어차피 걸어야 할 길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걸으라는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마시는 술은 앞의 절망의 술과는 꺾 다를 것이다. 안개의 두 의미와 사내의 두 잔의 술의 대조 사이에서 우리는 삶의 절망에서 길어올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희미하게나마 발견하게 된다. 아주 오랜 옛날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가 그랬듯이 말이다. 제우스의 아들로 잉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의 질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태어났고, 또 끊임없이 외지를 떠돌며 자라야 했던 디오니소스였다. 그런 순간들을 그는 포도주를 마시며 견뎌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만이 연출할 수 있는 향연의 세계를 창조했던 것이다. 바로 그같은 디오니소스적인 세계에서라면 술은, 희망이고 축복이다. 즐거운 황홀경을 연출하는 촉매제다.

唐詩 감상 / 元結의 詩

石魚湖上醉歌

石魚湖는 마치
 洞庭湖와 같은데
 여름 물은 가득 차고
 君山은 푸르렀다.

山은 바로 술통이요
 湖水는沼가 되고
 여러 술꾼들은
 모래톱에 둘러 앉는다.

여러 날의 거센 바람
 큰 물결 일으켜도
 술 나르는 뱃사람을
 막지는 못하였다.

나는 긴 바가지 들고
 巴邱에 앉고
 여러 사람 술 마시고
 시름을 흘날렸다.

石魚湖 似洞庭
 夏水欲滿君山青
 山爲樽 水爲沼
 酒徒歷歷坐洲島
 長風連日作大浪
 不能廢人運酒舫
 我持長瓢坐巴邱
 酌飲四座以散愁